

대학생의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지

The Demand Level for Business Start-up Education and Willingness of Starting a Business of College Students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서란숙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창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에 의욕 등을 높일 수 있는 창업관련 강좌의 개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살펴보았다.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공, 창업교육 경험 횟수, 창업교육 도움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박람회를 개최의 필요성과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창업분야에서 실무형 창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산학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의 육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창업의지

I. 머리말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인 도전의식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교육 체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인으로 진출하기 전 단계의 대학교육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탄력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보건환경학과(뷰티전공) 부교수

이에 창업관련 교육 또는 기업가교육은 새로운 21세기형 직업교육 문화를 만들어 내는 길 중의 하나이다.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 줄 아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또한 능동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계발케 하여, 자신을 기업과 사회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가면 관심분야의 직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창업 준비자로서의 대학생들은 자기존중감과 성공의 자신감을 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 행위를 촉진시키고 창업을 성공시키고 창업을 성공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창업 환경조건, 개인적 동기, 그리고 창업 지식 또는 기술이고 창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은 개인에게 창업동기를 부여해주는 주요 역할을 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업에 대한 개념의 해석 여부에 따라 창업의 결정요인도 달라지고 창업교육의 내용도 달라지므로 창업의 개념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창업교육에서 기업가 정신에 관한 탐구와 교육을 통해서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창업의 역사가 짧듯이 창업교육 또한 초보적 단계에 있으며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창업교육은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에 근거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교육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과 직장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미래의 창업의 주요 역군이며 이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요구도 및 창업의지를 분석함으로써 창업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 더 나아가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및 창업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향후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비즈니스 기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진로선택 기회가 되고 있다. 창업 교육 또는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21세기형 새로운 직업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내는 길 중의 하나이다. 창업교육은 모험심과 정열을 통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가정신과 그런 열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으로서, 단순히 주어진 직무만을 잘 수행해 내는 기능을 가진 수동적인 존재를 길러 내는 전통적인 취업교육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창업자 스스로 사업 아이디어 선정에서부터 기술 및 상품 개발, 시장정보, 재무 및 회계 관리, 마케팅, 상법과 노동법, 조직 관리 및 지도력, 자기 관리, 기업 윤리, 정부 정책 등을 포괄해야 하는 종합적인 창업자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지가 필수적이다. 창업 성공은 개인의 선천적인 자질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도 많으나 창업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속성과 능력의 많은 부분은 학습과 교육을 통해 습득되어진다.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창업에 대한 개념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경영기술을 익힐 수 있는 창업교육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창업교육 수료 후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취업을 하더라도 기업가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할 줄 아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교육은 비전, 창의성, 직관, 의식, 상식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대학 연합에서는 창업을 지향하는 학생은 '기회 탐지기(opportunity radar)'의 감각을 개발하고, 그러한 감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에 대한 감각은 새로운 사업의 기본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제품, 서비스 및 시장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학생들은 시장 연구 게시자를 위한 요구 분석, 사업 계획 및 사업 관리에 관한 능력뿐만 아니라 기회평가나 실행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를 학습해야 한다. 보다 더 기초적인 수준에서 학생들은 사업체 설립과 운영, 사업 착수 자금 및 재정 적 관건 및 재정의 원천 그리고 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률적 사항들에 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직업교육이 주로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피고용자 교육을 강조하였음에 비해, 창업교육은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규모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미래 지향적인 직업교육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 점에 있어서 창업교육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매력을 제공하는 유인력 높은 교육이다.

또한 창업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때 학생들은 졸업 후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사업체 내

* 강태웅,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성과 결정요인: 단기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의 노사 갈등 완화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그 투자 효용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닌다.*

창업교육은 꼭 사업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학생 및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교육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업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설사 기업가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자유 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기업가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졸업 후 직장생활 속에서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하게 된다.

따라서 창업교육을 단지 기업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점에 있어서 창업교육은 효용성이 높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창업교육을 통해 ‘자영 전략(self-employment strategies)’ 을 가르쳐 주는 일은 개인적인 자존심을 심어 주어 자신 있는 경제인이 되게 하여 준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에게 직업생활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직업교육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2 기업가정신

창업 및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나, 다른 경영학분야에 비해서는 본격적인 연구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기업가정신 연구를 주도한 학회로는 Babson-Kauffma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BKERC)가 있다.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의 연구주제가 변화해 온 것을 살펴보면, 이 분야 연구가 어떤 연구영역을 거쳐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매년 1회 발간하는 학회지가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이다. 연구주제의 발전과정은 BKERC의 연구주제에 반영된다. 기업가정신 분야를 선도하는 학회로서 처음 시작한 1981년에는 논문들을 7개 분야로 나누었다. 기업가에 대한 설문(Survey of Entrepreneurs), 다른 나라에서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in Other Countries), 제의캐피탈(Venture Capital), 정부와 기업가정신(Government and Entrepreneurship), 개인의 기업가적 경험(Individual Entrepreneurial Experiences),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구축(Thorizing About Entrepreneurship) 등이었다. 연구내용에 대한 체계보다는 그 당시의 연구자들이 인식하거나 가능한 연구들을 분류한 것이다. 그 이듬해에는 유형, 소수자와 여성, 지역적 패턴, 벤처전략, 벤처캐피탈 산업, 벤처캐피탈 계약, 대학으로부터의 스핀오프, 대학의 지원, 기업가적

* 정태화, “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창업교육”, 공업기술교육, pp. 31-32, 1996

교육과 경력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서 최근에서 전체 연구영역과 핵심영역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기업가정신은 학제 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다양한 분야의 이론이 접목되고, 보다 세부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지배적인 접근의 하나가 전략경영연구의 적용이다. 이른바 성과연구 또는 성공요인연구의 상당부분이 전략경영연구에서 언급되는 독립변수들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이에 반작용으로 이 분야 연구가 전략경영 등의 기존 이론을 벤처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식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새롭고 다양한 접근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하버드대학, 뱀슨대학, 스탠포드대학 교수들의 주도하였다. 특히 Stevenson et al.(1994)은 기업가정신을 하나의 독립적 경영영역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의 세 가지 핵심요소로 기업가, 기회, 자원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업가와 기회는 기업가정신 부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불린다.* 또한 기업가와 기회 간의 상호작용은 기업가정신의 별도의 경영학 학문 분야로 발전해 가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지목되었다.**

자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벤처캐피탈리스트이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연구는 BKERC에서도 특별상을 제정해 두는 등 아주 큰 비중으로 다룬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연구요청도 많아, 이 부분만 해도 많은 연구자가 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중요해지는 접근이 벤처생태계에 대한 연구이다. 신생벤처는 그 자체의 역량이나 활동도 중요하지만, 속한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difms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조세지원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 등의 완화 등 정책적인 환경도 중요하다.

교육부분으로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영대학원 등에서 기업가정신 부문의 교수직이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박사과정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학부,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등에 따라 교육 내용이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 Venkataraman,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Editor's Perspective" In: Katz, J.A. and Brockhaus, R.H. (Eds.), Advance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y, and Growth, Vol.3, JAI, Greenwich, CT, 1997.

** Shane, S. and Venkataraman, S.,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5, No.1, pp. 217-226, 2000.

*** Bruch, C. G., Duhaime, I.M., Gartner, W.B., Stewart, A., Katz, J.A, Hitt, M.A., Alvarez, S.A., Meyer, G.D. and Venkataraman, S., Doctoral Education in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Vol.29, No.3, pp. 309-331, 2003.

**** 배중태,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개발",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 1호, 155-180, 1998.

기업가정신 및 창업 분야의 연구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업가적 과정의 세 가지 부분인 기업가, 사회기회, 자원이다. 기업가적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경영학 분야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사회기회를 탐색하고 발견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기업가는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원들을 조달하고 결합함으로써 기회를 실현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재무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 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벤처캐피탈 연구와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주변 환경 및 여건조성을 다루는 창업 환경 및 벤처정책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내부 여건과 기업가적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벤처캐피탈과 생태계적 환경을 아우르면서 초과성과 달성을 추구하는 벤처전략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합하고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기업가정신 분야가 차별화되는 측면에 대한 이론구축을 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본질적이 측면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과 예비창업가, 기업가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실을 맺을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2.3 미국의 창업교육 현황과 지원동향

미국 창업교육 연구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한 이는 Karl Vesper이다. 그는 1971년부터 각 대학의 창업교육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과내용, 강의방식, 교육실험, 그리고 수업 활동 등을 분석하여 「창업교육」이란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보면 많은 학교들에서 창업에 관한 강의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967년 10여개 이내의 학교에서 창업에 관한 강의를 개설된 것에 비해 1970년에는 30개 학교, 1975년에는 약 105개 학교, 1980년에는 약 173개 학교, 1984년에는 약 250개 학교, 그리고 1993년에는 370여개 학교에서 창업 강의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최근 INC잡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7년 400개의 4년제 대학에서 그리고 600여개의 College에서 창업과 관련된 과목을 1년에 최소한 1번은 개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대학 중 창업관련 강좌가 가장 많은 곳은 Wichita주립대학으로 14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Calgary대학교, DePaul대학교, UCLA, Wharton School 등도 12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최근 Success 잡지에 의하면, 미국에서 창업 전문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가운데 최고 25개 대학에서 창업과목을 중점영

* 배종태, 차민석,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 「벤처경영연구」 제8권, 제3호, pp. 57-94, 2005.

역으로 택하고 있는 대학이 19개교나 되고 있으며, 창업전공 석사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4곳, 그리고 두 대학이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Success에 발표된 미국 상위 25개 대학의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기 학교의 특성과 지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다양한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과 관련하여 개설되는 과목도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벤처창업, 기업인수와 경영, 프랜차이즈, 가족기업, 벤처경영, 성장전략 그리고 환수전략과 같은 과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창업론 과목에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작성, 초청강연, 독서물, 사례 등이 포함된다.

최근 Vesper and Gartner(1997)는 그간 미국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128개 대학 창업교육 현황에 대해 광범위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중에서 미국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과목에 대해 Vesper and Gartner가 1994년에 조사한 내용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우선 미국의 창업관련 교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창업관련 과목의 수가 점차로 다양하게 확대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한 후 창업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창업분야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설되고 있다. 많은 대학에서 '창업론' 과 '중소기업경영론' 등의 창업관련 교과목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전공으로 설치하는 대학과 대학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설되고 있는 교과과정 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bson College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중심으로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학회에서 창업전·창업시·창업후의 3단계로 교과과정을 재편하였고 현재 필수과목 3과목을 포함하여 창업가정신 분야의 교과목만도 12개를 개설하고 있는 등 다양하게 학부과정과 MBA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IT에서는 MBA과정의 하나로 '신상품 및 벤처개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과목은 2개를 포함하여 11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이외에도 1,000개 이상의 경영대학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또는 '벤처경영(Venture manage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의 장기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한 창업교육으로 인하여 1987년의 미국 대학 신입생이 46%가 졸업 후 창업을 원했다. 또한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음은 물론 Ewing Kauffman's 창업연구센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도 자료에 의하면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 석사과정 졸업생의 90%가 자영업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였고 졸업한

지 10년된 졸업생들의 많은 수가 10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1/3정도가 스스로 창업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Storey*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보다 더 능력있는 젊은 기술 인력은 대기업보다 소규모기업을 선택하고 소규모기업이 대기업보다 기술 인력의 동기부여에 더욱 더 노력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소규모기업의 기술 인력에 대한 연구에서 소규모기업이 기술 인력이 그들이 대기업에 있었을 때보다 소규모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 더욱 창의적인 동기부여가 되어 대기업의 기술 인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과 연구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규모기업이 대기업보다 급여면에서는 작지만 미국 젊은 기술 인력들은 조직이 방대한 대기업에 속해있는 것보다 작은 기업에서 보다 더 독립적인 위치에서 그들의 창조적, 혁신적 기술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기를 원한다.

기존의 조직에서 새로운 비전과 경영 방법, 기술 등을 창조해 내는 것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창업정신의 정의에 따르면 미국의 젊은 기술 인력은 창업정신이 충만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성공적인 창업교육은 창업문화의 형성으로 연결되어 미국은 지난 20년간 약 3,6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되었고 현재 호황경제를 누리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일류대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근무를 회피하는 등 창업이 왕성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사실이며 주목할 만하다.

* Storey, D.,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Routledge, London, 1994.

<표 1> 창업과목의 수

Course offered or planned	Undergraduate		Graduate	
	In catalog	Planned	In catalog	Planned
Entrepreneurship or starting new firms	128	14	98	5
Small business/venture consulting	109	5	31	2
Field projects/Venture consulting	44	4	31	3
Starting and running a firm	34	2	18	1
Venture plan writing	31	3	23	1
Venture finance	30	4	30	6
Entrepreneurship for non-business majors	18	5	7	1
Family business	16	6	12	3
Venture opportunity findings/screening	15	1	9	0
Venture marketing	13	0	12	5
Management of fast-growing firms	11	4	10	4
Venturing in(arts, nursing, Eastern, Europe, technology, or other field)	11	3	6	1
Creative thinking	10	1	7	2
Franchise development	9	3	9	2
International venturing	9	2	6	0
Law for Entrepreneurs	9	5	5	3
Innovation evolution	7	0	21	1
Technology transfer	6	2	22	4
Entrepreneurship for(banker, software, writer, biologist, or other field)	5	1	4	2
Corporate venture	4	1	15	6
Business entry via acquisition	3	2	8	1
Street smart in business	2	0	2	0
Others	20	0	18	1

자료: Vesper, K. H. and W. B Gartner,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997.

<표 2> 창업과목의 내용

Course	Number of School Offering				
	Total	Underg.	Grad.	Both	NotSure
Entrepreneurship starting-up	120	16	35	63	6
Venture finance	83	19	45	16	3
Venture plan wiring	42	7	21	12	2
Venture marketing	35	4	22	8	1
Technology transfer	30	4	21	5	0
Project development	19	0	18	1	0
Opportunity finding/screening	24	2	12	8	2
Intranational venturing	21	6	11	1	3
Innovation evaluation	19	4	15	0	0
Law for Entrepreneurship	18	3	12	2	1
Creative thinking	16	4	10	2	0
Entrepreneurship Research	12	2	9	1	0
Entry via Aquisition	11	0	10	1	0
Franchise development	10	3	3	4	0
Venturing in arts, software, etc.	9	2	6	1	0
New product marketing	8	1	6	1	0
Entrepreneurship for banker, biologists, etc.	7	1	2	4	0
Entrepreneurship for non-business majors	6	3	1	2	0
New venture lab	5	1	4	0	0
Entrepreneurial economy	4	1	3	0	0
Social entrepreneurship	3	0	2	1	0
Sociology of Entrepreneurship	2	0	1	1	0
Total	504	83	269	134	18
Percent	100%	16%	53%	27%	4%

자료: Gartner, W. B. and K. H. Vesper,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es and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pp, 179-187, 1994.

2.4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현황

미국 창업교육 역사에 비하면 한국의 창업교육의 역사는 아주 짧다. 한국에서는 1980년 초반부터 소수의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교육하기 시작하였으나 교육 내용을 보면 기술창업보다는 일반 소자본 창업에 중점을 두었다.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컨설팅회사, 은행 등의 공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실무중심의 단기강좌를 활발히 개설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199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한국대학에서 창업과 관련된 중소기업교육에 있어서 37개 대학이 학부에 교과목을 설치하고 있으나 37개 대학 중 70%의 대학이 오직 한과목만

개설하고 그것도 창업교육보다는 기존 중소기업과 관련된 과목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대학에서 창업과 관련한 교육은 아직 미비하며 그에 따라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도 그 기반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KAIST에서는 1993년부터 대학원과정으로 기술창업론을 개설하고 있고 1998년부터는 학사과정 대상으로 벤처경영론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에서 벤처경영에 관심이 있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벤처 및 창업 관련 강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인하대의 경우 1999년 첫 교양과목으로 채택된 ‘벤처기업론’은 1999년 2월 26일 수강신청 접수 첫날에 정원 400명이 마감되어 이 학교 200여개 교양선택 강좌 중 학생 선호도 1위를 차지하였다. 인천대에서도 새로 개설한 ‘무역과 창업경영’ 등의 강좌도 정원 60-100명을 단숨에 채우며 인기과목 대열에 새롭게 들어섰다.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도 벤처창업론의 e-learning 수업이 학부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매학기 수백명의 학생들이 벤처창업지원센터와 연계된 실무형 창업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벤처전문기술학과, 교양학부등에서 주관하여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침체와 제조업 공동화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자본 창업 교육 붐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다. 일회성의 창업 특강에서 탈피 정규 창업 과목을 개설하는 가 하면 창업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선두에 선 곳은 명지대는 1학기부터 ‘틈새시장과 창업전략’을 주제로 교양 2학점 과목을 신설, 창업기본이론, 업종별 창업 트렌드와 창업전략, 상권분석,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국대, 원광대, 우석대, 중앙대, 한양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창업 강좌를 특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호서대, 숭실대 등은 벤처창업, 창업이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붐에 인터넷경매 쇼핑몰 ‘옥션’ 등 일부 창업 관련 업체들은 때 아닌 특수이다. 옥션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 창업특강’을 열어 달라는 각 대학의 요청에 일정을 맞추기도 힘든 실정이다. 옥션 관계자는 “2~3개 대학에서는 온라인 창업 교육을 정식 강좌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05년에는 창업대학원도 개설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호서대(서울권), 중앙대 안성캠퍼스(경기권), 한밭대(충청권), 예원예술대(전라권), 진주산업대(경상권) 등 전국 5개 대학을 창업대학원 운영대학으로 선정했다.

창업대학원은 대학당 30명 내외의 학생을 모집해 주간 2년, 야간 2년6개월 과정의

창업학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창업대학원 입학생에게 학비 일부와 기숙사를 제공하고 재학중 연간 2회의 해외연수 기회와 졸업시 창업 종자돈도 지원할 방침이다. 개강준비, 수강생 모집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강한다. 이인호 소장은 “단순한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졸업 후 젊은 대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현장교육으로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 창업강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도 창업강좌를 개설하는 곳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창업교육은 성장할 것이며, 아울러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 분야의 전공자를 위한 진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1998년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벤처비즈니스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모돈 1천9백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학교기업은 대학별 육성계획 공모를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 받게 되며 성공을 거둬 융자금을 상환하는 정도에 따라 확대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 상환액은 해당대학이 새로운 대학 내 기업에 채용자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렇게 대학 내의 창업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대학은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력에 제한없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창업, 재취업 관련 사회 인프라들도 구축되고 있다.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에서도 창업 관련학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최근 김영문의 “대학에서의 창업관련 학과 및 과목개설 현황” * 연구에서 보면, 창업관련 과목은 학부(혹은 대학) 차원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90.9%로 나타났고, 1학년 교양과정에서 개설하는 경우는 9.1%로 나타났다. 창업과 관련된 경우 학부(혹은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개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창업관련 과목들의 수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92.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창업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경우는 7.1%로 조사되었다.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과 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과목 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창업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를 조사한 결과, 경영관련 학과가 5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e-business학과가 13.1%, 정보기술학과가 6.1%, 관광학과가 5.1%, 경제, 무역, 유통관련 학과가 각각 4% 등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관련 과목이 운영되는 학제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85.9%로 나

* http://newbiz2001.blogspot.com/2007/07/blog-post_30.html

타났으며 2년제 대학은 14.1%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실무 및 실기를 중요시하는 2년제 보다는 이론을 위주로 교육하는 4년제에서 창업관련 수업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관련 개설과목의 유형은 벤처관련 강좌가 48.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창업이론에 관한 강좌가 34.3%, 무역창업 관련 강좌가 8%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이제 경우 소수의 4년제와 2년제 대학에서 창업에 대한 기초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숭실대와 호서대 등 2개 대학에서 1999년 1학기부터 창업에 관하여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년제 대학 이하에서는 창업교육이 4년제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2년제 대학 졸업생도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 있고 그들도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중요함에도 한국 대학 창업 교육에서 이들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성별 및 지역 등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일부분향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300부 중 285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에서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76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교육 실태는 창업교육 경험 유무, 창업교육 경험 횟수, 창업교육 경로, 창업교육 도움정도 등 총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창업교육 요구 교과목에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요구하는 과목 16개,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 요구하는 과목 20개로, 5점 리커트 척도의 형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의 5개의 범주들에 응답하도록 하고 각 문항 당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셋째, 창업교육 요구도는 창업교육의 필요성, 창업교육 청강여부, 학교 창업교육 수

강요구도, 학교 밖 창업교육 수강요구도와 관련된 총 4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형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그저 그렇다, 내용을 보고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5개의 범주들에 응답하도록 하고 각 문항 당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넷째, 향후 창업의사는 창업의사정도, 창업영역, 창업 시기, 창업자금 마련방법, 최대 창업투자비용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3.3 자료분석

설문결과를 토대로 통계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변수들과 관련된 제 개념에 대한 차이와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향후 창업의지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SAS 9.1을 이용하였다.

IV.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52.2%)가 여자(47.8%)보다 약간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약 2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53.6%)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였고, 전공에서는 공과대(3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과대(21.9%), 경영/상경대학(2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에서는 대부분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76(100.0)

변 수	집 단	N	%
성별	남자	144	52.2
	여자	132	47.8
연령	20세 이하	114	41.3
	21-25세	116	42.0
	26세 이상	46	16.7
	평균(표준편차)	22.10(2.63)	
학년	1학년	148	53.6
	2학년	46	16.7
	3학년	40	14.5
	4학년	42	15.2
전공	문과대	60	21.9
	경영/상경대학	58	21.2
	공과대	94	34.3
	이과대	42	15.3
	기타(축산대, 예술대 등)	20	7.3
아르바이트 경험	유	242	87.7
	무	34	12.3

*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4.2 창업교육 실태

창업교육 실태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창업교육 실태 중, 창업교육 경험에서는 창업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66.7%)가 있는 경우(33.3%)보다 과반수 이상 많았으며, 창업교육 횟수에서는 평균 1.6회 정도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경험 경로에서는 대부분이 학교 수업시간(87.2%)을 통해 교육 받았으며, 창업교육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8로 나타났다.

<표 4> 창업교육 실태수준*

N(%): 276(100.0)

변수	집단	N	%
창업교육 경험	유	92	33.3
	무	184	66.7
창업교육 경험 횟수	0회	184	66.7
	1회	44	15.9
	2회-5회	26	9.4
	6회 이상	22	8.0
	평균(표준편차)	1.58(4.67)	
창업교육 경험 경로	학교수업시간	82	87.2
	학교밖의 기관	6	6.4
	기타	6	6.4
창업교육 도움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0	0.0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6	6.4
	그저 그렇다	24	25.5
	다소 도움이 되었다	58	61.7
	매우 도움이 되었다	6	6.4
	평균(표준편차)	3.68(0.69)	

*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4.3 창업교육 요구도

창업교육 요구도에서 창업교육 교과목별 요구수준을 창업준비단계와 창업후 경영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창업준비단계시 창업교육 교과목별 요구수준에서는 사업기회발견(아이디어개발)이 5점 만점에 4.35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창업가정신(3.83점), 소자본창업론(3.81점), 사업타당성분석(3.81점), 벤처창업성공사례연구(3.80점), 창업자금조달론(3.7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도 모든 교과목이 3점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요구수준을 보였다.

<표 5> 창업준비단계시 창업교육 교과목별 요구수준

교과목	M	S.D	순위
1. 사업기회발견(아이디어개발)	4.35	0.70	1
2. 창업가(기업가)정신	3.83	0.76	2
3. 사업타당성분석	3.81	0.87	3
4. 소자본창업론	3.81	0.75	3
5. 벤처창업성공사례연구	3.80	0.91	5
6. 신상품개발론	3.77	0.84	6
7. 창업자금조달론	3.74	0.86	7
8. 사업계획서작성요령	3.73	0.83	8
9. 창업기업회계 및 세무실무	3.64	0.78	9
10. 창업관련법규·인허가실무론	3.60	0.89	10
11. 창업지원제도 및 육성정책	3.58	0.85	11
12. 벤처기술론	3.50	0.86	12
13. 프랜차이즈	3.49	0.97	13
14. 벤처창업경제론	3.48	0.87	14
15. 창업절차론	3.43	0.86	15
16. 기술이전론	3.13	0.79	16
전체			

다음으로 창업 후 경영단계시 창업교육 교과목별 요구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창업 후 경영단계시 창업교육 교과목별 요구수준에서는 서비스마케팅이 5점 만점에 4.24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인터넷마케팅(4.20점), 소비자행동분석론(4.18점), 시장조사론(3.92점), e비즈니스(3.88점), 기업 성장과 변화관리(3.8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도 모든 교과목이 3점 이상으로 높은 요구수준을 보였다. 즉, 창업준비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사업타당성 등 준비를 위한 교과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는 시장 및 소비자행동 분석과 마케팅관련 과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창업준비 단계에서나 창업 후 경영단계에서도 창업관련 교과목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창업 후 경영단계시 창업교육 교과목별 요구수준

교과목	M	S.D	순위
1. 서비스마케팅	4.24	0.69	1
2. 인터넷마케팅	4.20	0.74	2
3. 소비자행동분석론	4.18	0.81	3
4. 시장조사론	3.92	0.90	4
5. e비즈니스	3.88	0.84	5
6. 기업성장과 변화관리	3.86	0.78	6
7. 조직창의성	3.85	0.79	7
8. 글로벌벤처비즈니스	3.84	0.81	8
9. 기술혁신과 기술경영	3.80	0.83	9
10. 벤처기업경영전략	3.77	0.81	10
11. 벤처기업마케팅	3.76	0.78	11
12. 중소기업경영론	3.64	0.76	12
13. 벤처기업재무관리	3.63	0.82	13
14. 지식경영과 조직문화	3.61	0.83	14
15. 벤처기업인적자원관리	3.59	0.87	15
16. M & A	3.57	0.85	16
17. 기업가치평가론	3.49	0.82	17
18. 벤처기업 MIS	3.34	0.77	18
19. 가족사업(Family Business)경영	3.31	0.81	19
20. 사내벤처	3.19	0.79	20

창업교육 요구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수강요구도에서도 수강을 원하는 경우가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교안에서의 창업수강 요구도는 5점만점에 3.48 점, 학교밖에서는 3.11점으로 모두 중간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 창업교육 요구도 수준*

N(%): 276(100.0)

변수	집단	N	%
창업교육 필요성	전혀 필요없다	2	0.7
	별로 필요없다	4	1.5
	그저 그렇다	44	16.1
	다소 필요하다	166	60.6
	매우 필요하다	58	21.2
	평균(표준편차)	4.00(0.71)	
창업교육 수강여부	예	208	75.9
	아니오	66	24.1
학교 창업교육 수강요구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6	9.5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28	10.2
	그저 그렇다	24	8.8
	내용을 보고 참여한다	180	65.7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6	5.8
	평균(표준편차)	3.48(1.07)	
학교밖 창업교육 수강요구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6	13.1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46	16.8
	그저 그렇다	46	16.8
	내용을 보고 참여한다	144	52.6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0.7
	평균(표준편차)	3.11(1.11)	

*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4.4 창업교육 실태에 따른 창업교육 필요성의 차이

창업교육 실태에 따른 창업교육 필요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창업교육 필요성에는 창업교육 실태 중 창업교육 경험, 창업교육 경험 횟수, 창업교육 경험 경로, 창업교육 도움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t-test,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경험 횟수에서는 없는 경우보다는 6회 이상인 경우가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경험 경로에서는 학교수업시간이나 학교밖의 기관에서 창업관련 수업을 받는 경우가 기타인 경우보다 높은 필요성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도움 정도에서는 도움이 큰 상인 집단이 중, 하인 집단보다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창업교육 경험이 많은 경우에, 창업교육을 학교밖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 창업교육이 도움이 큰 경우에 창업교육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창업교육 실태에 따른 창업교육 필요성의 차이

변 수	집단	창업교육 필요성	
		M	Da)
창업교육 경험	유	4.20	
	무	3.90	
	t값	3.341**	
창업교육 경험 횟수	0회	3.90	B
	1회	4.19	AB
	2회-5회	4.15	AB
	6회 이상	4.27	A
	F비	3.819**	
창업교육 경험 경로	학교수업시간	4.22	A
	학교밖의 기관	4.67	A
	기타	3.00	B
	F비	12.529***	
창업교육 도움 정도	상	4.45	A
	중	3.67	B
	하	3.33	B
	F비	22.524***	

*P<.05 **P<.01 ***P<.001

Da)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5 향후 창업의지

(1) 향후 창업의지 수준

향후 창업의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향후 창업의지 수준

N(%): 276(100.0)

변 수	집단	N	%
향후 창업의지	전혀 원하지 않는다	26	9.5
	거의 원하지 않는다	50	18.2
	그저 그렇다	64	23.4
	약간 원한다	108	39.4
	매우 원한다	26	9.5
	평균(표준편차)	3.21(1.14)	
향후 창업영역	기술분야	24	12.9
	서비스분야	94	50.5
	가족기업	2	1.1
	대기업경험 후 창업	60	32.3
	기타	6	3.2
향후 창업시기	졸업후 1-3년	19.2	24.7
	졸업후 4-6년	50.0	21.3
	졸업후 7-9년	14.1	6.7
	졸업후 10년	16.7	47.2
	평균(표준편차)	8.25(5.75)	
향후 창업자금 마련방법		%	순위
	정부지원	18.85	3
	은행대출	26.61	2
	가족 및 지인들	14.49	4
	본인	35.58	1
	기타	4.74	5
	전체	100%	
향후 최대 창업투자비용	1천만원 이하	30	19.2
	1천-5천만원 미만	78	50.0
	5천만원-1억 미만	22	14.1
	1억 이상	26	16.7
	평균(표준편차)	11728.21(22611.52)만원	

*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향후 창업의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21점으로 중간이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창업영역에서는 서비스분야(50.5%)가 과반수 정도로 가장 많았다. 향후 창업 시기는 대학졸업 후 평균 약 8년 후에 창업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창업 자금마련방법으로는 본인 총당 경우(35.5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은행대출(26.61%), 정부지원(18.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최대창업투자비용은 평균 약 1억1천7백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는 높았으며, 서비스분야에서 창업하기를 원하고 투자비용은 약 1억 원 정도로, 3,500만 원 정

도는 본인이 충당하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이나 정부지원으로 충당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성별, 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창업교육 경험 경로를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향후 창업의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전공, 창업교육 경험 횟수, 창업교육 도움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표 10> 향후 창업의지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변 수	창업의지
	B
성별: 여자	.234
연령	.070
전공: 경영/상경대	-.967**
공과대	-.890**
이과대	-1.124*
아르바이트: 무	-1.599*
창업교육 경험 횟수	.412***
창업교육 경험 경로 : 학교밖 기관	.012
기타	-.306
창업교육 도움 정도	.433**
창업교육 필요성	.112
R2	.250
상수	-.026
F비	8.657***

*P<.05 **P<.01 ***P<.001

기준: 성별(남자) 전공(문과대)

아르바이트 경험(유)

창업교육 경험 경로(학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공, 아르바이트 경험, 창업교육 경험 횟수, 창업교육도움 정도가 향후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이 문과대보다는 공과대일수록, 문과대보다는 경영/상경, 공과대, 이과대인 경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창업교육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창업교육 도움 정도가 클수록 향후 창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요구도에 비해 아직 창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비록 소수의 연구자들이 최근 미국이나 일본의 창업교육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과과정과 교과목의 내용 및 수업진행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제공하고 창업에 공부의욕 등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경영분야는 물론 공학 등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전공을 살려 창업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창업의욕을 키워주기 위해서 창업관련 강좌의 개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창업교육 교과목 요구수준에서는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사회기회발견(아이디어 개발)과 관련된 교과목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창업가정신, 사업타당성분석, 소자본 창업론, 벤처창업성공사례 등의 순으로 높은 요구도 수준을 보였다. 이에 창업관련 학과를 개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많은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창업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입생의 모집을 생각하여 기존 학과를 창업관련 학과로 명칭변경을 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창업대학원의 경우에도 전국에 겨우 5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대학교(혹은 전문대학)에서부터 다양한 창업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창업동아리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각 학과에서 적어도 한 가지의 비즈니스(혹은 산학협력)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학 기간 중 중소, 벤처기업에서의 현장 연수 등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미취업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진로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 2-3년 동안 창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프랜차이즈,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쇄 도산 및 가맹점들의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아무런 실무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종이 몇 장으로 만들어진 수익성도 없는 창업아이템을 갖고서 예비창업자들의 쌈지 돈을 노리고 있으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알뜰한 상술로 인해서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만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건전성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아이템에 대한 인증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인

중계가 어렵다면 적어도 가맹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증보험상품 가입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창업의지에서는 3.21점으로 중간이상의 평균분포를 보였으며, 향후 창업 영역은 서비스분야로 과반수 이상이 원하였으며, 창업 시기는 졸업 후 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박람회를 개최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20-30개 정도의 창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 혹은 주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재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람회의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상당수의 창업박람회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위한 잔치로 마련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업교육의 도움정도는 중간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가장 많이 도산하고 있는 외식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박람회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창업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요리기술을 배운 후에 관련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제이론강의 몇 시간만 받고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창업분야에서 실무형 창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산학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의 육성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는 운영목적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대학의 관련 학과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상담기능 혹은 자금지원기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창업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태웅,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성과 결정요인: 단기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곽원섭·박선영·김연정, “혁신적 벤처특성화 기반을 위한 대학 벤처교육과정 모델 개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 8권 특별호, pp. 476-498, 2005
- 국민일보, “교도소 창업교육 절실…계명대 김영문교수”, “수감자 95% 창업에 관심” 2004.5.10
- 권영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창업교육 체계화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5.
- 김덕배, “청소년 사장님 키운다” 환경비스쿨 설명회, 「한국경제」, 2002.1.22
- 박지수, “창업정신요인과 직무만족 및 직장안정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2004, pp.6-8.
- 배종태,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개발”,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 1호, 155-180, 1998.
- 배종태·차민석,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 「벤처경영연구」 제8권, 제3호, pp. 57-94, 2005.
- 백형기,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전략”, 「미래와 경영」, 2000.
- 이용석, “창업교육 유무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식차이 조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장우·장수덕, “미국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 「벤처경영연구」 제 2권 제2호, pp. 57-90, 1999.
- 장대성, “경영 및 공학계열 대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12권, pp. 63-82, 2000.
- 장승화·김영수, “창업교육의 실태와 활성화방안”, 한국중소기업연구, 추계학술발표, 1999.
- 장원섭·박원화·박홍석 공저, “전문대학 창업교육 체계화 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 정태화, “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창업교육”, 공업기술교육, pp. 31-32, 1996
- 전영갑, “창업교육이 실업계 고교생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지근중,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업교육에 관한 인식도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

-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희정, “중교와 창업정신에 관한 연구-외식경영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한국경제, “대학에서 창업교육 받는다”, 2004.5.30
- 한서영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허정국,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실태와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Bchard J.P. and J.M. Toulouse, Validation of Diactics Model for The Analysis of Training Objectives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pp. 317-332, 1998.
- Bruch. C. G., Duhaime, I.M., Gartner, W.B., Stewart. A., Katz, J.A, Hitt, M.A., Alvarez, S.A., Meyer, G.D. and Venkataraman, S., Doctoral Education in the Field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Vol.29, No.3, pp. 309-331, 2003.
- Gartner, W. B. and K. H. Vesper,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es and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pp, 179-187, 1994.
- Lamont, L.M., What Entrepreneurs Learn Form Experie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egement, 10, 1990.
- Mayers, D. G. and Moir, C., The Growth of Small Firms in UK, Competition in Market, Macmillan Basingstoke, 1990.
- McMullan, W. and Long, W., An Approach to Educating Entrepreneurs, The Canadian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1, No.2, pp. 32-36, 1987.
- Phan, P.H., Entrepreneurship Theory: Possibilitie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9, pp. 667-620, 2004.
- Shane, S. and Venkataraman, S.,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5, No.1, pp. 217-226, 2000.
- Stevenson, H.H., Roberts, M.J. and Grousbeck, H.I., New Business Venture and The Entrepreneur, Fourth Edition, Irwin, 1994.
- Storey, D.,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Routledge, London, 1994.
- Timmons, J.A.,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th

Century, Irwin, 1994.

Venkataraman, "The Distinctive Domai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An Editor's Perspective" In: Katz, J.A. and Brockhaus, R.H. (Eds.), Advance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y, and Growth, Vol.3, JAI, Greenwich, CT, 1997.

Vesper, K. H. and W. B Gartner,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997.

http://newbiz2001.blogspot.com/2007/07/blog-post_30.html

<http://www.slu.edu/eweb/booklist.htm>